

금리 정점 찍었나...광주·전남 예금 한풀 꺾였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11월 여수신동향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고점을 지났다.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광주·전남 예금은행 수신이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뒤늦게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에 가세한 농·축협 등 상호금융과 신협, 새마을금고 수신은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의 '2022년 11월 여수신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수신 규모(말잔)는 158조89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11조1627억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예금은행 수신(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채·매출어음 등 시장성 수신 제외)은 같은 기간 57조9382억원에서 63조1722억원으로, 9.0%(5조2340억원)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89조7964억원에서 95조7251억원으로, 6.6%(5조9287억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은 지난해 9월 159조 4487억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이를 밑돌았다. 이 같은 감소세는 예금은행 수신이 9월

은행 예금 두 달새 4500억 줄어...지자체 9월 50조 정점

농축협·신협 등 '금리 경쟁' 합류...비은행권 11월 최대

64조39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두 달째 줄어드는 영향을 받았다.

예금은행 수신 가운데 정기 예금·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9월 49조4555억원으로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최대를 나타낸 뒤 2개월 새 4538억원(-0.9%) 빠져나갔다.

수신 내리막길을 보인 예금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지난해 11월 수신이 95조7251억원으로, 2개월 전보다 6754억원(0.7%) 증가하며 관련 통계를 낸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광주·전남 저축은행 수신은 지난해 10월 3조 3019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다음 달 3조2137억원으로 한풀 꺾였다. 하지만 전년 11월보다는 31.8%(7763억원) 많은 금액이다.

저축은행은 예금은행에 이어 9~10월 예·적금 금리를 크게 인상하며 점포 문을 열기도 전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특판 오픈콜'을 일으켰다.

저축은행보다 한발 늦게 자금 유치전에 뛰어든 다른 비은행권은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 수신 규모

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신협 수신 잔액은 1년 전보다 11.5%(1조3624억원) 증가한 13조2606억원이었고, 상호금융은 4.3%(1조6909억원) 늘어난 40조5767억원, 새마을금고는 12.3%(7679억원) 증가한 7조 86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여신은 대출금리의 잇따른 인상에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부문에서 한국전력의 운전 자금 대출 여파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월 한전재 발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9000억원, 하나은행에서 6000억원을 각각 빌렸다.

이에 따라 같은 달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은 136조18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10조3779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예금은행 여신은 전년보다 6.5%(4조8533억원) 증가한 78조9942억원으로 나타났고, 비은행권 여신도 10.7%(5조5246억원) 늘어난 57조 1954억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명절 화폐 공급 감소세 광주·전남 5314억 순발행

설 명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광주·전남 금융기관에서는 5314억원이 순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설 명절 화폐 공급은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3년 설 명절 한국은행의 광주전남지역 화폐공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 10영업일(1월9일~20일) 동안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5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순발행 규모와 비슷했지만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설 명절 전 10영업일간 화폐수급 추이는 지난 2020년 6303억원, 2021년 5443억원, 2022년 5336억원, 올해 5314억원으로 줄고 있다.

올해 설 명절 전 순발행액을 권종별로 보면 5만원권 발행 비중이 69.4%로 지난해 설 명절(60.1%)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만원권 비중(28.5%)은 지난해(38.3%)보다 9.8%포인트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때문에 공장 문 닫습니다”

광주·전남 7개 산단 3년간 140곳 휴·폐업...침단산단 82% 집중

광주·전남에 있는 7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코로나 19 확산 이후 3년 동안 모두 139곳에 달하는 공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광주·전남 7개 산단의 휴·폐업 기업은 모두 144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135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9개는 휴업했다.

광주·전남 국가산단 7곳에서의 휴·폐업은 코로나 19 확산기에 집중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광주·전남 폐업 업체는 12개(2020년)→61개(2021년)→57개(2022년) 등으로 늘어났다. 휴업한 기업은 지난 2021년 2개, 2022년 7개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전남 국가산단 폐업 업체의 82.3%(130개 중 107개)는 광주첨단산단에서 나

왔다. 광주첨단산단에서는 2019년 1개, 2020년 6개, 2021년 55개, 2022년 46개로 폐업 업체가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국가산단 휴·폐업 업체는 광주첨단산단 112개와 광양산단 5개, 대불산단 18개, 대불외국인투자지역 2개, 광주빛그린산단 1개, 장성삼계농공 1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휴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중소 제조업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기여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동구·순천시의회에 감사패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문선화 동구의원, 순천시의회 최미희·이항기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2020년 5월 여수시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해 현재 전국 8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 광주에서는 이번 동구를 포함하여 5개 자치구 모두 제정된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기술개발, 해외진출,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62년 설립된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로 영업력이 부족한 영세 인쇄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를 대표해 지속적인 정책건의로 금융 인센티브가 소상공인집적지구로 지정되는데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임택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최근 3고 위기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중기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조합 모집

중기중앙회 2월 1~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중기부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 지원사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

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2월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sc.kbiz.or.kr)에서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호남권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경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판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물류센터는 오는 3월부터 최초 2년 계약 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형식으로 2026년 2월까지 최장 36개월간 경기도 학교급식을 공급한다.

센터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학교급식으로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멜론, 블루베리, 무화과,

단감, 간마늘, 피망 등 46여 원의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연간 172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양상대 센터장은 "철저한 산지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확대

직·간접 금융지원에 6600억 보증 공급...경영안정 기대

전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6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원 한도의 보증과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3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41년 한결같이' 보해장학회 2022년 장학금 전달

광주·전남 학생 71명 4970만원 3897명에 36억7천여만원 지급

보해양조는 최근 목포 분사 사무실에서 '보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총 71명에게 497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장학회는 전남도체육회와 목포야동원 등 지역 11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했다.

1981년 보해양조가 설립한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지역 학생들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41년간 보해장학생으로 선발된 누적 인원은 389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36억7690만원에 이른다.

박철수 보해장학회 이사장은 "보해양조 설립자인 고(故) 임광행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보해장학회는 40여년간 장학사업에 헌신해 수많은 인재



를 배출했다"며 "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